

침묵 이라는 언어

예수는 부활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그 예수는 성모 마리아를 언제 찾아갔을까?

부활절 새벽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다. 예수는 그 시간 더 이상은 무덤에 있는 주검이 아니었다. 성모마리아는 그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새벽, 부엌으로 나가 아마 식구들의 식탁을 보면서 예수를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예수는 늘 앉던 자리에 와 앉았다. 감사와 그리움을 가득 담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오, 예수!” 한마디를 발음했다. 그리고 둘은 앉은 채로, 선 채로 서로를 응시했다. 잠시 후 예수는 일어서면서, “나는 멀지 않아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라고 했다. 그리고는 눈앞에서 떠났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 앉으면서, “주님!”하고 외쳤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침묵 속에서 느꼈던 희열과 위로. 그 둘은 단 두 마디로 몇 세기를 이어 내려오는 그 모든 메시지를 소통했을 것 같다.

천주교에서 신자들이 일상생활을 떠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 속에 머무르는 행위를 피정이라고 한다. 나는 운 좋게도 30일 피정(영신수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시작 당일 우리는 2시부터 4시 사이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다. 4시 10분전에 도착하니 이미 꼴찌였다. 각자 사인을 하고 배정된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5시에 성당으로 모였다.

5시. 피정 책임 신부는, 마태복음 14장, 예수께서 기도하시려고 따로 산에 올라 머물렀다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인사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바로 “피정은 물론 침묵으로 이루어집니다. 외적 침묵뿐 아니라 내적 침묵도 중요합니다. 눈인사도 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목적만 그렇게 짧게 시(詩)처럼 설명하고는 바로 수련이 시작되었다.

지도신부 3명, 수녀 14명, 평신도 2명, 그곳 식사준비 등 관계자들 해서 스무 명이 넘는 사람들이 4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한 달을 함께 생활하는 것이었다. 물론, 신문, 라디오, 컴퓨터, 전화 등도 없다.

그 많은 사람이 침묵으로 모든 생활이 가능하다는 진기한 체험이었다. 식사는 전체 인원이 같이 하고, 또 그룹마다 시간을 달리해서 미사와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어그럼없이 이루어졌다. 물론 뒷동산 산책도 가능했다. 쪽지에 ‘산?’ 이렇게 써서 보이면, 원하는 사람들이 현관 앞에 모인다. 그러면 한사람이 앞서고 계속 코스대로 따라갔다 돌아온다.

말소리가 없으니 집 전체는 그야말로 조용하다. 그러니 점점 더 모든 동작을 소리나지 않도록 하게 된다. 자기 방문을 여닫을 때에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문고리를 끝까지 돌려야 했다. 고요를 깨지 않기 위해 수저도 그릇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했다. 나중에는 기침이 나와도 미안한 형편이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걷는 데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려니 자연히 품격있는 그림자 걸음이 될 수밖에 없었다. 건물 입구의 풍경,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저절로 마음으로 젖어드는 시간들이었다.

침묵은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다른 구성원을 위해 배려를 기울이도록 했다. 누군지 어떤 인생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현재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을 존중해 주었다. 물론 나도 존중받고 있음을 느꼈다. 산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현재 상황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가장 중요한 일이지 모른다. 침묵 속에 배운 새로운 사랑이었다.

사랑이란 어쩌면 새로운 언어체계에 들어가는 행위인지 모른다. 지금까지 쓰던 단어들이 전혀 다른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언어로 대화하고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연다. 침묵으로 햇살이 하는 소리를 듣는다. 침묵으로 시냇물이 땅을 부딪치며 내는 외침을 듣는다. 침묵 속에서는 나와 부적응하는 사람들의 소리까지 선명하다. 오관의 모든 언어들이 침묵 속에서 베일을 벗는다. 입으로 발음하면 할수록 사라지는 언어들이다. 헛되이 발음하여 놓치고 싶지 않은 많은 진실들이 있다. 침묵 속에서 그 진실들이 보인다.



김 정 숙 위원
대구중재부
영남대 국사학과 교수